

보도설명자료 (18.5.7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에너지 세제 개편... 환경비용 세목 신설 안 한다
(5.7, 국민일보 인터넷판)

1. 기사내용

- ☐ 발전비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 밑그림이
나옴
 - 국제나 지방세 등 세제 비용을 조정하는 식으로 일부 에너지 세
율을 바꾸겠다는 게 골자
- ☐ 그러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석탄에 부과해야 할
환경비용 세목은 신설하지 않기로 해 반쪽자리 세제 개편이 될 것
이라는 지적

2. 동 기사에 대한 산업부 입장

- ☐ 정부는 발전부문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에 대한 고려를 위해,
작년부터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,
 - 유연탄, LNG 등 발전연료에 부과되는 현행 세제 부담금(개별소비세,
관세, 석유수입부과금)체계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
검토 중임
 - 정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발전연료 세제 부
담금에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방식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임



- ☐ 정부는 환경비용과 관련된 세목 신설을 검토한 바 없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남경모 과장 (044-203-5260)
조영길 사무관(044-203-5267)